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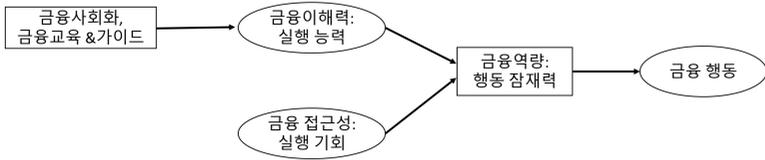
청소년의 금융사회화가 금융역량과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조선영 · 최현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도입 연구 배경 & 이론적 배경

금융시장의 발달과 다양한 거래 수단의 등장,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참여자가 성인에서 청소년으로 확장되었다. 청소년이 금융시장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금융역량을 증진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교육 외에도 어린 시절 간접적인 금융 관련 대화와 경험, 돈에 대한 태도와 가치가 성인이 된 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손상희 외, 2017; 안드레아 브라운, 2002) 금융교육의 장으로서 학교 외 가족이나 또래집단, 미디어 등을 통한 금융사회화 금융역량과 바람직한 재무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3년 청소년 금융이해력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금융사회화 수준과 대행요인별 금융사회화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Sherraden(2013)의 금융역량모형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금융사회화가 금융역량과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금융역량의 경우 자원의 한계로 지식과 태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금융지식의 경우 25개의 객관식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금융태도는 돈에 대한 태도와 위험수용성향을 대리변수로 하여 실증 분석에 활용하였다.



1. 금융사회화

금융사회화는 소비자 사회화의 한 영역으로 의미있는 타자로부터 지식·태도·기능을 학습하고 내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화는 지속해서 관계를 맺으며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학습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이다(Ward, 1974). 이에 사회화 대행요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금융사회화 대행요인은 가족(주로 부모), 학교, 또래집단, 미디어 등 4개로 구분된다. 주로 가족, 특히 부모가 자녀의 사회화 대리인으로 지식, 기능, 태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주목을 이루고 있다(한지형·최현자, 2013; Sohn et al., 2012; Gutter et al., 2010; Gudmunson & Danes, 2011; Dreyer et al., 2015; Grohmann et al. 2015).

2. 금융역량

금융역량은 개인이 보유한 재무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현명한 금융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금융 지식·기능·태도 구성되어 있다(FSA, 2005). 청소년 금융역량과 관련된 실증 연구 중 지식, 태도,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금융교육이 금융이해력(지식)에 미치는 영향 또는 금융이해력 결정요인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김은정·문정숙, 2010; 박상은, 2020; Kaiser & Menkhoff, 2017). 한편, 김지음(2023)은 현행 교육과정의 금융교육이 합리적 선택과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능력 향상에 집중되어 금융역량 하위 구성요인을 균형적으로 학습할 기회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3. 재무관리행동

재무관리행동은 재무자원 관리와 관련된 모든 행동으로, 행동/행동의 결과, 단일행동/행동의 범주, 행동의 수행여부/수행 빈도 등 다양한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Xiao, 2008). 정영선·조영달·박형준(2013)은 청소년의 금융행동을 예산 관리, 저축행동, 신용관리로 구체화하고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저축행동 점수는 높았지만, 예산관리와 신용관리 점수는 낮았다. 학업성취도, 용돈 지급주기, 용돈충분성 인식, 가계소득, 부모 학력, 금융교육 경험 여부 등이 청소년의 금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1.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사회화 수준

〈표1〉 개인적 특성에 따른 금융사회화 수준 (단위: 점)

개인적 특성	구분 (%)	금융사회화 수준	부모	또래집단	학교	미디어
성별	남 (47.28)	2.96 (.04)	3.17 (.05)	2.97 (.05)	2.84 (.06)	2.84 (.05)
	여 (52.72)	2.64 (.03)	3.00 (.04)	2.67 (.05)	2.49 (.05)	2.38 (.05)
	t값	5.76***	2.70**	4.35***	4.53***	6.13***
학교 유형	일반고 (75.31)	2.77 (.03)	3.10 (.04)	2.80 (.04)	2.59 (.04)	2.59 (.04)
	특성고 (24.69)	2.84 (.06)	3.01 (.06)	2.87 (.07)	2.83 (.08)	2.63 (.07)
	t값	-1.00	1.24	-0.88	-2.67**	-0.49
지역	서울 (15.34)	2.83 (.78)	3.07 (.91)	2.83 (.99)	2.67 (.99)	2.73 (1.03)
	수도권 (36.12)	2.78 (.73)	3.12 (.83)	2.83 (.89)	2.65 (1.02)	2.52 (.96)
	그 외 (48.54)	2.78 (.78)	3.05 (.86)	2.80 (.95)	2.65 (1.07)	2.62 (1.07)
	F값	.18	0.54	0.11	0.03	1.70
아라바이트 경험	있음 (28.87)	2.82 (.05)	3.05 (.06)	2.90 (.06)	2.70 (.07)	2.62 (.06)
	없음 (71.13)	2.77 (.03)	3.09 (.04)	2.78 (.04)	2.63 (.05)	2.59 (.04)
	t값	.75	-0.58	1.62	0.82	0.41
	전체	2.79 (.76)	3.08 (.86)	2.81 (.93)	2.65 (1.04)	2.60 (1.03)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사회화 수준은 5점 만점에 2.79점으로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금융사회화 대행요인별 점수를 살펴보면, 부모를 통한 금융사회화가 3.0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또래집단(2.81점)이었고 학교와 미디어를 통한 사회화는 각 2.65점과 2.60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개인적 특성에 따른 금융사회화 수준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금융사회화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금융사회화 총점이 2.96점으로 여학생보다 0.32점 높았고, 대행요인별 금융사회화 수준에서도 남학생의 금융사회화 점수가 여학생보다 .17~.46점 높았다. 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면 특성고와 학생이 일반고 학생과 비교해 학교 금융사회화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2. 청소년의 금융사회화가 금융 역량에 미치는 영향

〈표2〉 금융사회화가 금융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비교

구분	금융 지식 b(s.e.)	태도		
		돈에 대한 긍정적 태도	위험수용성향	
금융사회화	-0.377*** (0.686)	0.019 (0.037)	0.158*** (0.047)	
통제변수	성별(0=남)	0.502 (1.040)	-0.037 (0.056)	-0.342*** (0.072)
	학교 유형(0=일반고)	-5.556*** (1.206)	-0.076 (0.064)	0.005 (0.083)
거주지 (0=서울)	수도권	-3.742* (1.548)	-0.092 (0.083)	-0.036 (0.106)
	지방	-3.702* (1.490)	-0.035 (0.080)	-0.114 (0.102)
아라바이트 경험(0=있음)	3.427** (1.164)	0.114 (0.062)	-0.171* (0.080)	
용돈 금액(만 원)	-0.037 (0.050)	0.005 (0.003)	-0.003 (0.003)	
상수	57.550*** (2.696)	3.886*** (0.144)	2.260*** (0.185)	
adj R ²	0.080	0.005	0.057	
F값	9.887	1.520	7.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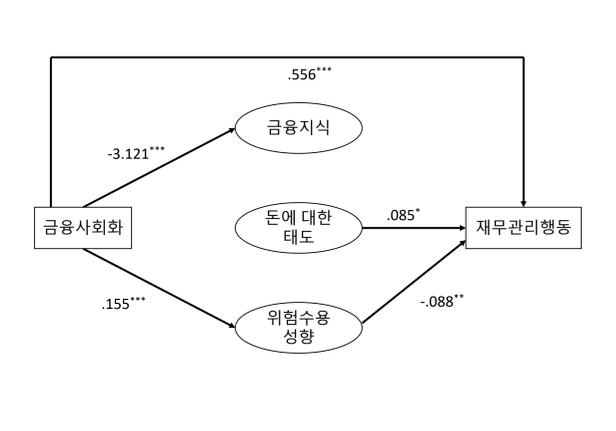
회귀모형은 금융지식과 위험수용성향을 각 8%, 5.7%로 설명하여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돈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은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금융사회화를 대행요인별로 세분화하여 금융 지식과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금융지식, 돈에 대한 긍정적 태도, 위험수용성향에 모두 유의한 회귀식으로 나타났다. 금융 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학교 금융사회화, 학교 유형, 거주지, 아라바이트였고, 위험수용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미디어 사회화, 성별, 아라바이트 경험으로 나타났다. 돈에 대한 태도에는 부모, 또래집단, 학교, 미디어 등 금융사회화 대행요인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3〉 금융사회화 대행요인별 금융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금융 지식	태도		
		돈에 대한 긍정적 태도	위험수용성향	
금융사회화 대행요인	부모	-0.062 (0.714)	0.121** (0.0375)	-0.091 (0.049)
	또래집단	0.442 (0.719)	0.118** (0.038)	0.047 (0.049)
	학교	-1.953** (0.612)	-0.068* (0.032)	0.034 (0.042)
	미디어	-1.211 (0.662)	-0.112** (0.035)	0.137** (0.045)
통제변수	성별(0=남)	0.383 (1.042)	-0.061 (0.055)	-0.320*** (0.072)
	학교 유형(0=일반고)	-5.267*** (1.213)	-0.053 (0.064)	-0.006 (0.083)
	거주지 (0=서울)	수도권 -3.885* (1.550)	-0.123 (0.081)	-0.009 (0.106)
	지방	-3.720* (1.487)	-0.044 (0.078)	-0.106 (0.102)
아라바이트 경험(0=있음)	3.442** (1.162)	0.112 (0.061)	-0.162* (0.080)	
용돈 금액(만 원)	-0.053 (0.050)	0.003 (0.003)	-0.002 (0.003)	
상수	56.46** (2.753)	3.748** (0.144)	2.369*** (0.189)	
adj R ²	0.085	0.044	0.067	
F값	7.682	4.253	6.140	

금융 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교 금융사회화, 학교 유형, 거주지, 아라바이트였고, 위험수용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미디어 사회화, 성별, 아라바이트 경험으로 나타났다. 돈에 대한 태도에는 부모, 또래집단, 학교, 미디어 등 금융사회화 대행요인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연구결과 3. 금융역량을 매개로 청소년의 금융사회화가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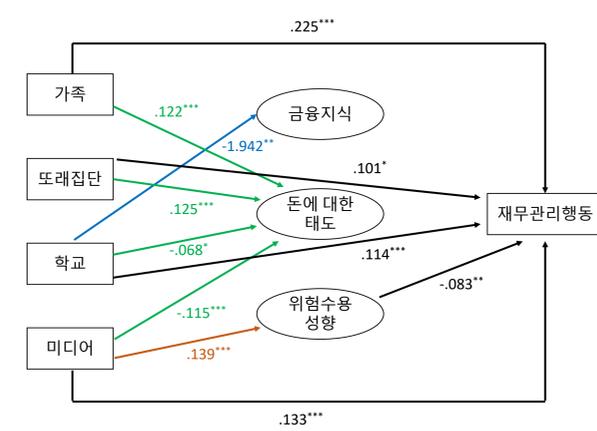


〈표4〉 금융사회화가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트스트래핑 결과) (n=717)

Effect	SE	95% CI	
		LLCI	ULCI
총효과 (금융사회화 → 재무관리행동)	.550	.039	.474 .626
직접효과 (금융사회화 → 재무관리행동)	.556	.039	.479 .633
총 간접효과	-.006	.009	-.024 .013
간접효과 (금융사회화 → 금융지식 → 재무관리행동)	.006	.007	-.008 .021
간접효과 (금융사회화 → 돈에 대한 태도 → 재무관리행동)	.002	.004	-.005 .010
간접효과 (금융사회화 → 위험수용성향 → 재무관리행동)	-.014	.007	-.028 .003

금융사회화와 금융사회화 대행요인은 금융역량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보다 재무관리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금융사회화를 단일 변수로 검증하였을 때, 금융지식에는 부정(-) 영향을 미쳤지만 금융지식은 재무관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금융사회화는 위험수용도를 높였고 위험 선호적일수록 바람직한 재무관리행동에 부정(-)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바람직한 재무관리행동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금융사회화가 돈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금융 역량 변수 중 위험수용성향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금융사회화 대행요인별로 살펴보면, 각 대행요인 재무관리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미디어 금융사회화를 제외한 가족, 또래집단, 학교 금융사회화는 바람직한 재무관리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모든 대행요인은 돈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대행요인별로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금융 지식에는 학교 금융사회화가, 위험수용성향에는 미디어 금융사회화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금융지식과 돈에 대한 태도는 재무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수용성향만 미디어 금융사회화와 재무관리행동 간의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표5〉 대행요인별 금융사회화가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트스트래핑 결과) (n=717)

Effect	SE	95% CI	
		LLCI	ULCI
1. 가족금융사회화			
총효과 (가족사회화 → 재무관리행동)	.242	.041	.162 .321
직접효과 (가족사회화 → 재무관리행동)	.225	.041	.144 .305
총 간접효과	.017	.008	.003 .036
간접효과 (가족사회화 → 금융지식 → 재무관리행동)	.009	.007	-.001 .025
간접효과 (가족사회화 → 돈에 대한 태도 → 재무관리행동)	.008	.005	.000 .019
간접효과 (가족사회화 → 위험수용성향 → 재무관리행동)	.000	.002	-.004 .005
2. 또래집단금융사회화			
총효과 (또래집단사회화 → 재무관리행동)	.106	.040	.027 .186
직접효과 (또래집단사회화 → 재무관리행동)	.101	.041	.021 .180
총 간접효과	.006	.008	-.008 .022
간접효과 (또래집단사회화 → 금융지식 → 재무관리행동)	-.001	.002	-.006 .003
간접효과 (또래집단사회화 → 돈에 대한 태도 → 재무관리행동)	.010	.006	.000 .024
간접효과 (또래집단사회화 → 위험수용성향 → 재무관리행동)	-.003	.005	-.013 .005
3. 학교금융사회화			
총효과 (학교사회화 → 재무관리행동)	.109	.035	.041 .177
직접효과 (학교사회화 → 재무관리행동)	.114	.035	.045 .182
총 간접효과	-.005	.006	-.018 .007
간접효과 (학교사회화 → 금융지식 → 재무관리행동)	.003	.005	-.006 .013
간접효과 (학교사회화 → 돈에 대한 태도 → 재무관리행동)	-.005	.004	-.015 .001
간접효과 (학교사회화 → 위험수용성향 → 재무관리행동)	-.003	.004	-.011 .004
4. 미디어금융사회화			
총효과 (미디어사회화 → 재무관리행동)	.115	.038	.041 .188
직접효과 (미디어사회화 → 재무관리행동)	.133	.038	.058 .207
총 간접효과	-.018	.008	-.036 .004
간접효과 (미디어사회화 → 금융지식 → 재무관리행동)	.002	.003	-.003 .010
간접효과 (미디어사회화 → 돈에 대한 태도 → 재무관리행동)	-.009	.006	-.022 .001
간접효과 (미디어사회화 → 위험수용성향 → 재무관리행동)	-.011	.006	-.025 .002

금융 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교 금융사회화, 학교 유형, 거주지, 아라바이트였고, 위험수용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미디어 사회화, 성별, 아라바이트 경험으로 나타났다. 돈에 대한 태도에는 부모, 또래집단, 학교, 미디어 등 금융사회화 대행요인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사회화 수준과 금융역량과 재무관리행동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사회화 수준은 5점 만점에 2.79점으로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 대행요인별로 부모를 통한 금융사회화(3.08점)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또래집단(2.81점)이었고 학교와 미디어를 통한 사회화는 각 2.65점과 2.60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청소년의 금융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사회화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 기존 금융사회화 연구에서 가족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금융사회화는 학교 수업이나 미디어를 통해 지식·기능·태도를 습득하기보다 의미 있는 타자와의 행동 관찰이나 모방,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
- 둘째, 금융사회화는 금융역량과 금융행동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사회화 대행요인별 청소년의 금융 태도나 지식 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만하다.
 - 금융사회화 대행요인은 모두 돈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영향력 크기와 방향에는 차이가 있었다. 부모와 또래집단은 정적(+) 관계, 학교와 미디어는 부정(-)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금융사회화 대행요인별 사회화 내용에 대한 질적 연구가 추가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 금융 지식에는 학교 금융사회화와 학교 유형이, 위험수용성향에는 미디어 금융사회화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학교 금융사회화가 금융 지식에 부정(-) 영향을 미치는 점은 현재 학교 금융교육이 실용적인 금융 지식을 포함하는지, 변화하는 금융 환경과 제도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정규수업시간에 금융교육 내용이 충실하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미디어 금융사회화는 돈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고 위험수용성향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금융투자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2023년 청소년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청소년의 1/3이 펀드, 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시간이 증가하고 관련 콘텐츠도 다양하게 제공됨에 따라 미디어 사용시간, 콘텐츠 유형 등에 이용에 따라 청소년 금융역량과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 셋째, 금융사회화는 금융역량을 매개로 금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보다 금융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었다.**
 - 금융사회화 대행요인은 모두 바람직한 금융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금융사회화가 바람직한 재무관리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은 의미있는 타자의 금융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여 금융 지식과 태도 등으로 내재화 하지 않고 바로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음으로 의미한다. 직접적인 교육이 아니라도 가족, 친구, 미디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바람직한 재무관리 행동을 학습할 수 있으므로, 금융행동의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금융교육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다만, 본 연구에서 금융사회화가 금융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금융사회화 문항은 대행요인과의 대화, 관찰, 모방 등을 행동 유형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금융 지식은 '소득의 이해', '화폐관리의 이해', '저축과 투자의 이해', '지출과 신용의 이해' 등 구체적인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체적인 금융 지식보다 가치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어린 시절 간접적인 금융 관련 대화와 경험, 돈에 대한 태도와 가치가 성인이 된 후에도 영향이 미치므로(손상희 외, 2017; 안드레아 브라운, 2002) 청소년 금융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할 때, 금융 지식 뿐 아니라 바람직한 금융태도와 가치를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 대상의 금융사회화 수준과 금융역량과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금융사회화가 청소년의 금융 역량과 행동에 중요한 선행변수로 확인된 만큼, 금융사회화 대행요인별로 사회화 경로와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바람직한 금융역량과 행동을 형성하기 위한 경로로 학교교육과 더불어 부모, 친구, 미디어 등 사회화 대행요인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이 현명한 금융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